■ 여수박람회 유치 준비 점검차 방한 로세르 탈레스 BIE 사무총장 인터뷰

정부 인프라 확충 강한 의지 '긍정적'

2010년 유치 실패 교훈 삼아 경쟁력 키워야

모로코 의식 하지 말고 여수 적극적 알려야

"엑스포 유치 준비 상황을 들어보니 지방정부 차원에서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여수는 도로·철도·공항 등 SOC 인프라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지금은 많이 확충된 것으로 보입니다."

로세르탈레스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사진〉은 20일 광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여수는 2010년 엑스포 유치에 나서 아깝게 실패했으나 그때는 상해와 모스크바 등 세계적 대도시와 경합이었기에 실패로 말하기 어렵다"며 현재의 여수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 등 참여정부에서 여수 등이 포함된 서남해안 개발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곧 여수 등에 많은 투자가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엑스포의 성공적 진행도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또 "엑스포 주제가 해양 도시인 여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며 "여수시민들이 2012 엑스포 유치에 열정적 자세를 보이는 점도 여수의 엑스포 유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제박람회기구 의장이 최대 경쟁국인 모로코의 엑스포 유치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점과 관련,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BIE 정관에 엑스포를 유치하지 하지 않은 대륙이나 나라를 우선 배려한다는 조항이 분명 있으나 이는 의장으로서 기본적인 선호도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의장의 발언은 단순한 바람일 뿐 개최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엑스포는 준비가 잘된 도시나 나라에 대한 회원국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또 "모로코가 유치 결정을 할 당시 모로코 국왕 및 장관 등을 만난 적이 있다"고 밝힌 뒤 "모로코는 북부 지역의 개발을 위해 엑스포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치 의지도 여수시 못지 않다"며 여수의 분발을 촉구했다.

그는 엑스포 유치 전략과 관련, "지난 2010년 엑스포 유치 경쟁 당시 한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차원의 중복된 유치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며 "2012년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유치 캠페인을 조율하면서 국제적인 유치 활동을 주관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조성 및 적절한 동기부여를 통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이와 함께 "2010년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당시 준비는 매우 훌륭했다"고 평가한 뒤 "당시 유치 경험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치전에 참여했던 인적 인프라와 경험을 2012년 엑스포 유치전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국제적 행사 유치 등을 통해 세계에 여수를 알리는 홍보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주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개성공단·금강산 사업으로 흘러간 돈 美, 北미사일 개발비 전용 우려

방한 레비 차관… 정부선 "사실과 다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통과 후 대북 제재 방안을 둘러싸고 한·미간 견해차가 노출되면서 개성공단 개발과 금강산관광사업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북제재협력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리즘 및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18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개성공단의 임금 및 금강산 관광 비용으로 북한에 유입되는 달러가 미사일 및 대량 살상무기(WMD) 개발비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비 차관은 18일 미 재무부 웹사이트에 공개한 이한(離韓) 성명에서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이나 WMD와 관련된 어떠한 금융 자원에 대해서도 대북 이전을 방지할 것을 요구한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 공통 관심사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레비 차관은 성명에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세계 금융부문을 WMD 확산, 돈세탁, 테러 자금 등 불법 활동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에 관해 한국측과 견해를 공유했다"고 밝혀 대북 송금문제와 함께 북한의 위폐 문제 등도 협의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문화일보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국측은 금강산 관광비와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금으로 쓰이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으나 이 것은 입증되지 않은 것이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통상적인 남북협력사업"이라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은 이날 레비 차관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비용의 미사일 및 WMD개발비용 전용가능성에 대해 한국정부에 우려를 표시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朴지사, 강원도 이재민 위로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19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를 방문, 이재민 임시 수용소인 한계초등학교에서 주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

24세미만 軍미필자 해외여행 자유화

앞으로는 24세 이하의 군미필자도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62세 이상 고령자도 사립 초.중등교 교장 및 유치원 원장의 임용자격을 얻게 되며,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 '프리랜서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19일 시장변화에 뒤떨어지는 각종 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을 벌여 총 1천413건의 정비대상 과제를 선정, 과제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규제는 전체 등록규제(8천29건)의 17.5%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24세 이하 병역의무자 중 미필자에 대해 해외여행 허가제도를 폐지, 해외여행시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18~35세)의 경우 해외여행시 병무청장 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다. 단 25세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 24세 이하는 해외여행 중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해외여행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귀국신고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연합뉴스

美 기업 투자유치 박광태 시장 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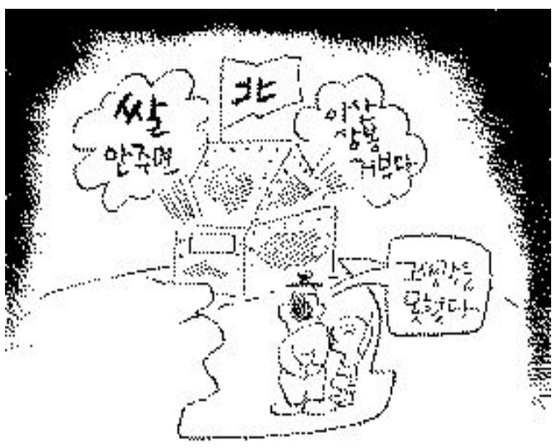
박광태 광주시장이 광주시 주력산업인 광산업과 자동차 부품 산업 관련 기업유치를 위해 19일 오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박 시장은 6박7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시카고 등 미주 지역을 방문, LED 제조사인 시카고의 '웨스팅하우스 LED라이팅 시스템즈'사 등을 찾아 투자유치 협의를 벌인 뒤 24일 입국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못먹어 살빠지면 얼굴 못 알아본다

차 한대라도 더 팔아 주려고 이리뛰고 저리 뛰었는데…

기아차 노조 파업에 분개한 광주시청 직원들

"차 한대라도 더 사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입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가 시민들의 '파업철회'요구를 외면하고, 지난 18일 부분 파업을 벌인데 대해 광주시청 간부들이 서운하고 허탈한 심정을 토로했다. 19일 오전 정남준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정례 간부회의에서다. 광주시가 재계·시민단체 인사 33인이 참여한 '기업사랑협의회'를 만들어 '기아차 사주기 운동'을 하는 등 크고 작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짝사랑'한 꼴이 된데 따른 배신감 때문이다.

간부들은 한결같이 "(기아차 노조원들이)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느냐"고 성토했다.

한 간부는 "기아차가 파업을 할 때마다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부도 직전까지 몰린다"며 "자신들의 밥그릇만 지키려고 툭하면 파업을 한다면, 시민들이 이제까지 기아차에 보낸 애정을 철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지난 2003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기아차 사주기 운동을 펴 지난 5월 유관기관과 함께 200여대 구매 협약식까지 체결했다.기아차는 18일 부분파업으로 230대의 생산차질과 36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주 경제통상국장은 "기아차 노사의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5일 이후에는 파업 수위가 높아져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기업사랑협의회 위원들이 직접 기아차를 방문해 더 이상의 파업은 자제해 달라는 호소라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광고 원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아래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히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 직통:(062)227-9600 • FAX:227-9500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
사설금융·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광주은행:001-107-228160 ◆농 협: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합 병 공 고
주식회사 홍재인터내셔널("갑")은 2006년 7월 3일 주식회사 우정통상("을")은 같은날 각각 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 20일
"갑" 주식회사 홍재인터내셔널
인왕시 동안구 관양동 1605 한솔센트럴파크2, 1510호
대표이사 박 영 미
"을" 주식회사 우정통상
관양시 성황동 35-1
대표이사 이 희 태

한정승인공고
망 정안조(351128-1552516)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시행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느단 736
공 고 인:이춘자, 정병호, 정진숙, 정미숙, 정철, 정선숙
한정승인수리일:2006. 7. 12
공고기간:2006. 7. 20~2006. 9. 19
연 락 처:광주 남구 진월동 269 진아하이빌아파트 101-401 정철 (011-608-8538)

한정승인공고
망 김병섭(411110-1639315)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시행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느단 748
공 고 인:위관녕, 김용숙, 김완희, 김성희, 김대종, 김선종
한정승인수리일:2006. 7. 14
공고기간:2006. 7. 20~2006. 9. 19
연 락 처:광주 북구 용봉동 696-44 김대종 (016-694-8608)

어음·가계·담보
♠어음1,000萬원 이하 환영
[月2~5.5%]
(등록업체)
010-3009-6633

분양대행전문회사
분양 대행 전문-분양이 안되십니까?
*아파트/상가/빌딩/전원주택/기타부동산관리
부동산 개발 관리-토지개발을 준비하십니까?
부동산 투자 클럽-투자유망한곳을 찾고 계십니까?
광주·전남 공인중개사 협력체구성
분양! 청담과 상의하시면 길이 있습니다.
(주)청 담 D & C
062)382-4984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옆
청담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담전화:062)381-0049
* 광주권 아파트/토지/상가-건물-매물접수
* 아파트 분양권 전문-분양권매매 상담환영
* 아파트 부지 구함
* 이주자 협의택지 구함
* 필요하신 부동산 구해드립니다
* 부동산 투자상담 환영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시간강사를 모십니다
1. 모집내역

모집분야	모집인원	지원자격	문의처
졸업자격 인정영어 (Global English)	0명	• 영어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분	(062)530-3637
TOEIC/ TOEFL/ TEPS	0명	•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해당 공인시험 고득점자 ※ 관련 강의경력자 우대	(062)530-3638
초·중등 영어	0명	• 영어 또는 어린이교육 관련 (부전공 가능)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분	(062)530-3641
한국어	0명	•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분 ※ 한국어 교육 경력자,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구사 가능한 분 우대	(062)530-3648

2. 모집기간
2006년 7월 28(금)일까지
3. 접수방법
우편접수, 전자우편, 방문접수 모두 가능
(자세한 사항은 언어교육원 홈페이지 http://language.chonnam.ac.kr 참조)

입 양 통 지
부 김영원, 모 서룡옥(현재 신청인과 혼인)의 자인 한국 서울에서 1992년 3월 18일 출생한 미성년자 김희정에 대한 입양 신청 사건을 신청인 Joseph A. Koch가 인디애나주 Greenfiled, 9East Main Street 소재 한국 카운티 지방법원(소송번호 : 30D01-0604-ad-59)에 접수하였음을 주거 미상의 김영원에 대해 통지한다. 본 입양 신청은 김영원이 본 신청이 있기 6개월 전에 김희정을 유기하였다는 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데도 불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 데도 하지 않았다는 점, 부모로서 부적합하다는 점, 신청인의 입양신청에 대한 김영원의 동의를 생략하는 것이 김희정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본 입양에 대한 김영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김희정 입양에 대해 김영원이 다투려고 하는 경우에는 상기 법원에 본 공시 송달 30일 경과 전에 인디애나주법 31-19-0-1에 의거 입양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김영원이 본 송시 송달 30일 내에 상기 법원에 입양에 대한 재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본 법원은 입양 신청 심리를 개시하고 이에 대해 결정한다. 김의정의 입양에 대한 동의는 취소 불능이며 김영원은 본 입양 또는 본 입양 동의의 효력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김영원에게 대한 구두 진술은 본 공시 송달에 의한 의무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본 공시 송달은 인디애나주법 31-19-4.5-3을 따르지만 인디애나주 입양 법령에 의한 개인의 법적 의무를 전적으로 표현하지는 아니한다. 본 공시 송달을 받는 자는 인디애나주 입양법을 참조하여야 한다.
위 사실을 확인 함 : Joseph W. Murphy (#9383-49)
한국 지방법원 GRESK & SINGLETON, LLP
Ga'eway Plaza, Suite 410

지붕·옥상슬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겨울철 보온, 난방비 절감! 지금 시공하십시오!!
비가 새서 걱정하십니까?
여름에 더워서 짜증 납니까?
겨울에 춥습니까?
외관상 흉하십니까?
소음이 심하십니까?
한번 시공으로 건물 수명을 능가한 영구제품 난방비 50% 절감효과
■ 외 장 : 기 와지붕, 스레이트지붕, 함석지붕, 스라브 옥상, 아파트 옥상, 공장지붕, 농협창고 등
■ 내 장 : 돈사, 축사, 제사, 냉동창고, 저온창고, 체육관, 건물벽, 차음등 실내 인테리어 가능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주택개발 TEL(062) 262-0606 262-0450